

인천공항에 최대 복합리조트 들어선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2022년 인천공항 국제업무지구(IBC)지역에 5성급의 최고급 호텔과 테마파크, 1만500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 컨벤션 시설 및 외국인 전용카지노 등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인스파이어 복합엔터테인먼트 리조트가 문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오는 2022년 인천공항 국제업무지구(IBC) 지역에 5성급 호텔과 테마파크, 1만500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과 테마파크 컨벤션 시설 및 외국인 전용카지노 등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엔터테인먼트 리조트가 문을 연다.

인천공항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 인천공항 IBC-III 지역에 공사를 착공하고 오는 2021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는 6일 오전 그랜드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인스파이어인터그레이트리조트(인스파이어), 파라다

이스 픽처스와 '인천공항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협력약정서'를 체결하고,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의 성공적인 개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공사 정일영 사장과 인스파이어 케빈 브라운 이사회 의장, 파라다이스 픽처스 케빈 서수석 부사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인스파이어는 미국 동부 최대규모의 카지노리조트 운영기업인 MGE(Mohagan Gaming & Entertainment)사가 100% 출자한 특

인스파이어·파라다이스와 협력약정서 체결

5성급 호텔·다목적 공연장·카지노 등 갖춰

공사, 테마파크 운영되면 1만개 일자리 창출

300만명 신규 외국인과 60만명 환승객 유치

수목적법인이다.

파라다이스 픽처스는 '미션임파서블' '스타트렉' 시리즈 등 세계적인 흥행작을 보유한 미국 영화사이다. 이들의 흥행작을 바탕으로 다양한 테마파크 컨텐츠를 개발해 인스파이어 리조트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이번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와 파라다이스 테마파크가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향후 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복합리조트 클러스터가 조성돼 연간 300만명 이상의 신규 외국인 관광객과 60만명 이상의 환승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사장은 "앞으로 인천공항을 세계적인 공항복합도시로 발전시켜 인천공항의 허브와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 관광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케빈 브라운 의장도 "혁신적인 복합 엔터테인먼트 리조트(IER)라는 인스파이어 컨셉의 구현에 파라다이스 픽처스가 함께 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인스파이어 IER 모델을 통해 업계 트렌드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대를 거듭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국의 여가·관광 산업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스



조선시대 한양도성 4대문 중 하나로 1915년 일제에 의해 철거된 후 지금까지 유일하게 모습이 남아있지 않은 '돈의문(敦義門)'이 증강현실(AR)로 104년 만에 되살아난다.

1915년 일제 철거 '돈의문'

AR기술로 104년 만에 복원

조선시대 한양도성 4대문 중 하나로 1915년 일제에 의해 철거된 후 지금까지 유일하게 모습이 남아있지 않은 '돈의문(敦義門)'이 증강현실(AR)로 104년 만에 되살아난다.

돈의문 터인 정동사거리 인근에서 스마트 기기로 비추면 화면 상에 옛 돈의문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새로운 개념의 복원이

다. 서울시는 6일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복원하고 문

국내·외 관광객들이 보다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 콘텐츠로 개발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 경북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문화재 디지털 재현 및 역사문화도시 활성화 문화관광콘텐츠 개발·활용에 관한 업무협약 을 체결한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총괄적인 기획과 함께 문화재 복원,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활용의 지원을 담당한다. 우미건설은 IT건축 재

서울시·문화재청·우미건설·제일기획, '돈의문 프로젝트'

돈의문 터를 스마트 기기로 비추면 화면에 그대로 재현 복원

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논의 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돈의문은 일명 서대문이라고도 한다. 1396년 완성된 후 몇 차례의 중건을 거쳤다가 1915년 일제강점기에 도시계획의 도로확정을 이유로 철거됐다. 그동안 여러 차례 복원을 시도했지만 교통난 보 상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복원되지 못했다.

서울시 등은 고층·디지털 작 해 스킵프로 마련했다. 유소년 야 구·축구 교실도 열린다. 유치부~ 초등부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중 운영되는 송중국 FC 유소년 축구교실은 반별 주 1회,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잠실종합운동장 제2 풋살장에서 진행된다.

현과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기금을 후원한다. 제일기획은 사업을 주관하면서 홍보를 지원한다.

이들 기관은 이번 돈의문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IT기술을 활용한 다른 문화재 복원사업도 추가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주요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정부·지자체, 민간 기업의 협력을 통해 잃어버린 문화재를 IT기술로 재현·복원에 역사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며 "돈의문 프로젝트가 사라졌던 문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과거의 역사를 현대적 기술로 체험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하반기부터는 시민은 물론 서울을 방문한

조직 달래기 나선 박원순...인사전략 전환 이유는

민선 6기 외부인사 수혈로 반발

다그치기 대신 파트너 인식 전환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내놓은 '민선7기 인사운영 방안'은 지난 2014년 재선에 성공한 뒤 발표했던 인사혁신안과는 사뭇 달라 주목된다.

민선 6기 당시에는 공직사회 개방성을 강화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분발을 자극하겠다는 외부인사를 대거 영입했다면, 이번에는 격무에 시달리는 내부 공무원들을 달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2014년 재선에 성공한 뒤 박 시장이 내세운 '외부 수혈' 인사 원칙은 시 공무원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조직 내부에서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외부영입으로 시 공무원 조직이 이른바 늘공(늘공)시 등을 통해 공직에 들어온 공무원과 어공(외부영입 등

을 통해 공직에 들어온 임기제 공무원)으로 나뉘어 갈등이 불거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이번 민선 7기 인사운영 방안은 그간의 박원순식 인사전략의 반성 또는 변화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공무원을 다그치고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던 박 시장이 이제는 보다 나은 시정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함께 해야 하는 '파트너'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박원순식 인사 방식 변화는 민선 6기말에도 일부 감지된 바 있다. 격무부서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자 박 시장은 자신의 지시사항을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공무원 조직 달래기를 시도했다.

박 시장으로서는 2011년부터 거듭된 외부인사 영입으로 인한 내부 늘공-어공간 갈등과 피로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점차 강화되는 아젠의 공세 속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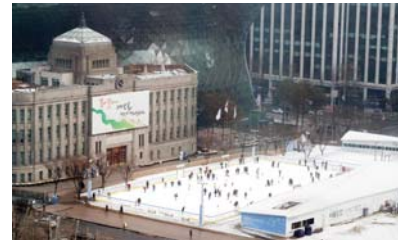
'박원순식 코드인사'라는 비판의 여백을 짚을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이 이날 발표한 인사의 핵심인 국장급 통합승진제와 주요 난제 담당 실무공무원 공모제, 격무·기피부서 장기근무자 특별승급 등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장급 통합승진제는 3급 승진 실시시 직렬·직군 구분 없이 모든 일반직에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고위직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풀이된다.

주요 난제 담당 실무공무원 공모제는 해결하기 힘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그간 어려운 업무를 맡는 공무원들이 인사발령과 함께 휴직을 하는 등 문제가 적지 않았는데 업무 담당 희망자를 내부에서 모집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뉴스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오는 21일 드디어 개장

서울시는 6일 겨울시즌을 맞아 각종 스포츠 대회와 행사 운동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21일부터 내년 2월10일까지 운영된다. 입장료는 1000원이다. 서울광장스케이트장 통합운영사이트에서 예매할 수 있다. 스케이트는 물론 컬링도 즐길 수 있다. 각종 동계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VR(가상현실)체험존도 준비되어 있다.

장애인과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해 스킵팜도 마련했다. 유소년 야구·축구 교실도 열린다. 유치부~ 초등부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중 운영되는 송중국 FC 유소년 축구교실은 반별 주 1회,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잠실종합운동장 제2 풋살장에서 진행된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